

KIA 우승멤버 그대로 김주찬과 27억 계약



KIA 타이거즈 김주찬(왼쪽)이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구단 사무실에서 FA 계약을 체결한 뒤 조계현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2+1년 계약금 15억·연봉 4억



‘호랑이 군단’의 2연패 도전을 위한 우승 조각이 맞춰졌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김주찬과 계약 기간 3년(2+1년)에 계약금 15억원 연봉 4억원 등 총 27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KIA와는 두 번째 계약이다. 2000년 삼성에 입단한 김주찬은 이듬해 롯데로 이적해 활약했으며, 2012시즌이 끝난 뒤 FA 계약(4년 50억원)을 통해 KIA로 등지를 옮겼다.

크고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1년을 더 기다려 FA 자격을 재취득한 김주찬은 다시 한번 KIA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김주찬은 계약을 마친 후 “계약하는 데 시간이 걸린 만큼 올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스프링캠프 출발 전까지 운동에만 전념해 올 시즌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찬을 끝으로 지난해 ‘V11’을 합작한 우승 멤버들의 재구성도 끝났다.

KIA는 11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촉성회 자리에서 2연패를 외쳤다. 2연패라는 목표를 위해 지난 시즌 KIA를 대표했던 박한우 사장은 “우승 주역을 모두 잡겠다”고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

KIA는 지난 11월 30일 일찌감치 외국인 트리오와의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2년 연속 200이닝을 찍으며 20승 고지에 오른 헥터가 30만 달러 인상된 2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하면서 KIA에서의 3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역사를 새로 쓴 외야수 베나디나와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에 앞장섰던 팻핀도 모두 우승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인상된 연봉안에 사인을 하고, 2연패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관심을 모았던 양현종의 거취도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됐다.

양현종은 지난 12월 28일 2017시즌 연봉 15억원보다 8억원 인상된 23억원에 계약을 끝내고 KIA 팬들의 근심을 덜어줬다.

팀의 유일한 FA이자 자리가 확정되지 않았던 김주찬까지 조계현 단장과 손을 잡으면서 KIA는 ‘우승 멤버’ 그대로 2018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핵심 전력에 변동이 없는 KIA는 지난 시즌 가장 큰 고민이었던 불펜 업그레이드를 위한 호재도 맞았다.

‘나이스 가이’로 후배들을 이끌었던 서재응이 투수 코치로 새로 합류했고, 박정수·문경찬·이종석·이은학 등 군데대 선수들과 부상에서 회복한 유승철·차명철 등 젊은 투수들이 경쟁에 불을 붙였다.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이민우와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윤석민도 마운드 플러스 전력이다.

‘우승 캡틴’의 계약까지 마무리되면서 KIA의 ‘V12’를 향한 2018시즌 구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현, 호주오픈 2회전 진출

미샤 즈베레프에 기권승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62위·삼성증권 후원·사진)이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약 463억원) 1회전을 통과했다.

정현은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단식 1회전에서 미샤 즈베레프(34위·독일)에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선 2세트 기권승으로 따냈다.

이로써 정현은 즈베레프와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천적 관계를 구축했다.

정현은 첫 세트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게임 스코어 1-1에서 듀스 끝에 즈베레프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해 우위를 점했다.

정현은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킨 데 이어 다시 한 번 브레이크에 성공해 4-1로 앞서갔다. 결국, 1세트는 6-2로 정현이 쟁겼다.

2세트 역시 비슷하게 경기가 흘러갔다. 게임 스코어 1-1에서 정현은 즈베레프의 연이은 실수를 틈타 브레이크했고, 연달아 2게임을 따내 4-1로 앞서갔다. 그러자 즈베레프가 기권을 선언해 정현은 48분 만에 승리를 챙기며 체력을 아꼈다.

2년 연속 호주오픈 1회전을 통과한 정현



은 2회전에서 다닐 메드베데프(53위·러시아)-타나시 코키나키스(216위·호주) 승자와 맞붙는다.

정현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지난해 프랑스오픈에서 거둔 3회전 진출이다.

/연합뉴스



토머스 홍

앤디 정

김영아

“어머니의 나라서 첫 올림픽 설레요”



D-23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는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외에도 다른 나라 국기를 단 한국계 선수들이 여럿 출전한다.

미국 대표 토머스 홍(20·홍인석), 호주의 앤디 정(20·정현우), 카자흐스탄 김영아(25)는 모두 모국에서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토머스 홍은 5살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5세대.

토머스 홍의 누나 스케이팅 감수에 따라갔던 어머니가 빙상장에서 진통을 시작해 그를 낳았다. 마치 스케이팅을 탈 운명을 지고 태어난 것처럼 5살 때 스케이

트를 신은 토머스 홍은 초등학교 3학년 때 9세 이하 아메리카컵 스케이팅 대회 3관왕에 오르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주니어 대표를 거쳐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최연소 선수로 대표 선발전에 도전했으나 11위로 탈락했다. 이후 2016-2017시즌과 2017-2018시즌 미국대표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했고 지난 시즌 5,000m 계주 금메달을 수확했다.

토머스 홍은 “엄청나게 신이 난다”며 “한국 문화에 아주 익숙하다. 돌아가게 돼 흥분된다”고 말했다.

호주 대표 앤디 정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했다. 6살 때 한국에서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트를 신은 토머스 홍은 초등학교 3학년 때 9세 이하 아메리카컵 스케이팅 대회 3관왕에 오르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주니어 대표를 거쳐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최연소 선수로 대표 선발전에 도전했으나 11위로 탈락했다. 이후 2016-2017시즌과 2017-2018시즌 미국대표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했고 지난 시즌 5,000m 계주 금메달을 수확했다.

토머스 홍은 “엄청나게 신이 난다”며 “한국 문화에 아주 익숙하다. 돌아가게 돼 흥분된다”고 말했다.

호주 대표 앤디 정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했다. 6살 때 한국에서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트를 신은 토머스 홍은 초등학교 3학년 때 9세 이하 아메리카컵 스케이팅 대회 3관왕에 오르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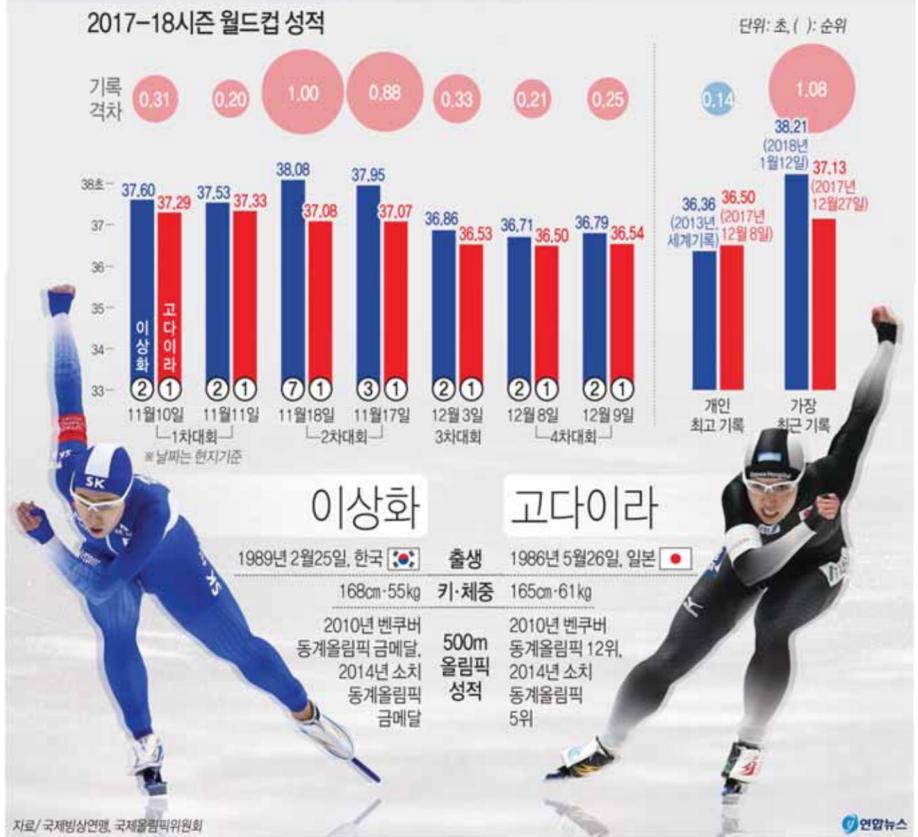
격을 표현했다. 카자흐스탄 대표 김영아(영문 표기 Long A Kim)는 선수의 꿈을 위해 귀화한 경우다.

세계 최강 수준인 한국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의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김영아는 2017년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며 전력 보강이 필요했던 카자흐스탄 빙상연맹의 제안을 받고 2014년 귀화했다.

귀화 절차와 ISU의 규정에 따라 2년간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다가 2016년 12월 강릉에서 열린 ISU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국기를 달고 출전했고 이후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3,000m 계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아는 평창올림픽에서 1,000m와 1,500m에 출전한다.

지난해 11월 ISU 월드컵 출전을 위해 서울을 찾은 김영아는 “첫 올림픽 무대가 평창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 선수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메이카 여자 선수 중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봅슬레이팀의 펜레이터 빅토리아(오른쪽)와 캐리 러셀.

쿨러닝 이어 쿨볼트

자메이카 여자 봅슬레이 첫 출전

자메이카 여자 봅슬레이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16일 NBC스포츠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자메이카 여자 봅슬레이 2인승 부문의 자즈민 펜레이터 빅토리아(32)-캐리 러셀(28) 조가 평창행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자메이카 여자 선수의 동계올림픽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 소치 대회까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자메이카 선수는 11명으로, 모두 남성이었다.

자메이카 남자 봅슬레이 대표팀의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도전기는 영화 ‘쿨러닝’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펜레이터 빅토리아와 러셀은 자신들의 설매를 ‘미스터 쿨볼트’라고 이름 붙였다. ‘쿨러닝’과 자메이카 출신의 세계 최고 단거리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의 성을 합쳤다.

펜레이터 빅토리아는 소치 대회에는 미국 여자 봅슬레이 대표로 출전해 1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평창 대회를 앞두고는 자신의 혈통에 따라 가슴에 자메이카 국기를 달았다.

러셀은 자메이카 육상 대표팀의 2013년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00m 릴레이 금메달 멤버다.

/연합뉴스